

배포일시	2019.04.30(화)		
보도요청	배포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과학사업본부장 김명일 (042-930-8659)	담당자	기획팀 차장 박서영 (042-930-8504)

바이오니아, 수산생물 검역 신속진단 키트 개발 국책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 주관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 총 57개월간 정부로부터 35억원의 연구지원비 지원
- 키트 개발로 수산물 검역시스템의 국산화 구축 및 OIE 등재로 국가적 위상 제고

(주)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가 해양수산부의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사업(수산생물 검역용 신속진단키트 개발)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바이오니아는 국책과제를 통해 주관연구기관인 부경대학교(수산생명의학과 김도형 교수)와 함께 2023 년 말까지 총 35 억원의 연구비(과제 연구비 총 90 억중 바이오니아 35 억 지원)를 지원받게 되며, 수입 수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법정전염병(10 종)의 병원체 보균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와 정밀진단 키트 개발 및 OIE 검역시스템 등재를 목표로 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수산물 대상국가는 약 127 개국(2016 년 기준)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품종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산물 병원체가 유입되고 있고, 각종 수산생물 질병에 의한 연간 피해액이 2,500 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검역장에서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며 수산물의 수출입은 OIE 에 등재된 방법대로 검사하거나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증이 완료된 수산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OIE 에 등재된 수산물 진단키트는 흰반점바이러스(WSSV) 진단키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수산물 전염병 진단키트의 OIE 등재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바이오니아 김명일 과학사업본부장은 "수입산 수산물에 전염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보적인 진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 수산물 검역시행장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법정전염병(10 종)의 병원체 보균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와 정밀진단 키트 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OIE 검역시스템 등재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다.